

# 『새한글성경』을 중심으로 한 역본 비교 연구 — 누가복음 —

정창욱\*

## 1. 누가복음 1:1

GN*T*<sup>5</sup>

Ἐπειδήπερ πολλοὶ ἐπεχείρησαν ἀνατάξασθαι διηγησιν  
περὶ τῶν πεπληροφορημένων ἐν ἡμῖν πραγμάτων,

『개역개정』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새번역』

우리 가운데서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 차례대로 이야기  
기를 엮어내려고 손을 댄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공동개정』

존경하는 데오필로님, 우리들 사이에서 일어난 그 일  
들을 글로 엮는 데 손을 댄 사람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새한글』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 놓으신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엮어 내려고 많은 사람들이 손을 댔습니다.

### 1.1. 차이점 관찰

(1) 『개역개정』은 1절에서 원문의 일부만 번역에 포함시켰고 『공동개정』은 원문의 3절에 있는 ‘존경하는 데오필로님’이라는 칭호를 맨 처음에 놓았습니다.

(2) 『개역개정』은 ‘이루어진 사실’로 번역하고 『새번역』과 『공동개정』은 ‘일어난 일들’과 ‘일어난 그 일들’로 번역한 반면에, 『새한글』은 ‘이루어 놓

\* Vrije Universiteit Amsterdam에서 신약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음. 현재 총신대학교 신학과 교수. cwjung21@gmail.com.

으신 일들'로 번역하였습니다.

### 1.2. 외국어 역본 참조

(1) 위의 항목 두 번째 사항과 관련하여, ESV, NIV, NRS, NKJ 등 많은 영어 성경은 'things/events that/which have been fulfilled/accomplished among us'로 번역했으며, NAS는 뒷부분의 관계대명사절을 빼고 분사인 'accomplished'로 번역하였습니다.

(2) 대다수 독일어 성경의 경우에 현재완료로 번역하고 있고, 현재 수동태로 번역하여 의미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 1.3. 차이점이 생긴 이유에 대한 예비적 고찰

(1) 『개역개정』이 1절의 일부만 포함시킨 이유는 아마도 한글의 특성을 고려하여 1절과 2절을 하나로 묶어 번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며, 『공동개정』의 호객 배치도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2) 그리스어 동사의 시제는 완료이고 태는 수동태인데 이것을 한글로 번역하기가 어렵기에 『새번역』과 『공동개정』은 능동으로 번역하였고 『개역개정』은 완료의 의미는 반영하지 않고 수동태를 반영하여 번역했다고 여겨집니다. 반면에 『새한글』은 수동태와 완료의 의미를 반영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 1.4. 차이점이 생긴 이유에 대한 신학적 고찰

(1) '이루다' 동사는 수동태로서 이것은 신적 수동태이며 따라서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구속사의 일들을 묘사합니다.

(2) 신적 수동태를 한글로 표현하는 법은 생각보다 단순해서 존칭어를 사용하면 되기에 『새한글』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신적 수동태를 표현하였습니다.

(3) 또한 이 동사의 시제는 현재완료로서 독특한 시상을 드러내는데, 그리스어의 현재완료는 어떤 사건의 과거 발생과 그것에 따른 현재적 상태를 동시에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를 담아내기 위해서 『새한글』은 '이루어 놓으신'으로 번역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상태를 조금 더 분명히 반영하기 위해서 '이루어 놓아두신'으로 번역한다면 완료의 의미가 더 잘 표현될 것입니다.

## 2. 누가복음 2:22

GN*T*<sup>5</sup>

Kαὶ ὅτε ἐπλήσθησαν αἱ ἡμέραι τοῦ καθαρισμοῦ αὐτῶν  
κατὰ τὸν νόμον Μωϋσέως, ἀνήγαγον αὐτὸν εἰς Ἱεροσόλυμα  
παραστῆσαι τῷ κυρίῳ,

『개역개정』

모세의 법대로 정결예식의 날이 차매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새번역』

모세의 법대로 그들이 정결하게 되는 날이 차서, 그  
들은 아기를 주님께 드리려고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라갔다.

『공동개정』

그리고 모세가 정한 법대로 정결 예식을 치르는 날이  
되자 부모는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새한글』

모세의 율법에 따라 그들을 깨끗하게 하는 예식의 날  
이 다 되었을 때, 그들은 주님께 바치려고 아기를 데  
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 2.1. 차이점 관찰

(1) 『개역개정』과 『공동개정』에는 정결 예식을 행하는 주체인 ‘그들’이 생략되어 있으며 『새번역』은 이것을 ‘그들이’라는 주어로 만들면서 동사를 수동태로 번역하였고, 『새한글』은 ‘그들을’이라는 목적어로 만들고 동사를 능동태로 번역하였습니다.

(2) 『개역개정』과 『새번역』은 ‘날이 차다’로 번역한 반면에 『공동개정』은 ‘치르는 날이 되다’로 번역하였고, 『새한글』은 ‘날이 다 되었을 때’로 번역하였습니다.

### 2.2. 외국어 역본 참조

(1) ESV, NAS, NRS 등 대다수 영어 성경은 ‘그들의 정결케 하는’에 해당하는 표현을 ‘their purification’으로 번역하였으며, KJV과 NKJ는 ‘her purification’으로 번역하였습니다.

(2) 대다수 독일어 번역은 이것을 ‘ihrer Reinigung’으로 번역하였습니다.

### 2.3. 차이점이 생긴 이유에 대한 예비적 고찰

(1) 『개역개정』과 『공동개정』이 ‘그들’을 생략한 이유는 아마도 ‘그들’로 할 경우에 문맥상 어려움이 있으므로 의도적으로 모호하게 정결의 대상을 생략하여 처리했다고 여겨집니다.

(2) 영어 성경의 KJV과 NKJ의 ‘her’는 다수 사본을 따라서 원문을 ‘그녀의’를 지칭하는 여성 소유격 대명사로 판단했기에 선택되었다고 여겨집니다.

(3) ‘날이 차다’ 등으로 번역된 그리스어 동사의 시제는 수동태로서 『개역개정』과 『새번역』은 한글로 자연스럽게 표현하기 위해서 능동태로 번역한 것으로 보입니다.

#### 2.4. 차이점이 생긴 이유에 대한 신학적 고찰

(1) 그리스어 원문에 있는 대로 번역하자면 ‘그들의 정결케 하는 것의 날들’이 되는데 이럴 경우에 ‘그들’이 누구를 지칭하는지 의아함이 들 수 있으나, ‘그들’은 예수님의 부모를 지칭한다고 할 수 있으며 일반적 속죄제사에 대한 설명으로 볼 수 있습니다.<sup>1)</sup>

(2) 마리아의 경우에 출산을 하여 부정하게 여겨졌을 터이고 요셉은 어쩌면 예수님의 출생 때에, 산과 없이 아이를 받아내는 일을 했을 수도 있는데 필연적으로 괴를 묻힐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3) 『공동개정』의 ‘정결예식을 치루는 날이 되자’라는 표현은 부정확한 번역이고, 『새번역』처럼 ‘그들이 정결하게 되는 날’로 수동의 의미로 번역 할 필요는 없으며, 『새한글』의 ‘그들을 깨끗하게 하는 예식의 날이 다 되었을 때’라는 번역은 원문을 반영하면서도 의미가 제대로 전달되는 번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4) 『새한글』의 번역은 ‘그들’이 누구를 지칭하는지 분명하게 표현해 줍니다:

그들을 깨끗하게 하는 예식의 날이 다 되었을 때에,  
그들은 주님께 바치려고 …

### 3. 누가복음 9:22

GNt<sup>5</sup>

εἰπών ὅτι Δεῖ τὸν υἱὸν τοῦ ἀνθρώπου πολλὰ παθεῖν καὶ ἀποδοκιμασθῆναι ἀπὸ τῶν πρεσβυτέρων καὶ ἀρχιερέων καὶ γραμματέων καὶ ἀποκταυθῆναι καὶ τῇ τρίτῃ ἡμέρᾳ ἐγερθῆναι.

1) 이 구절과 관련된 자세한 설명은 D. Bock, *Luke 1:1-9:50* (Grand Rapids: Baker, 1994), 236-237을 참조하라.

『개역개정』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린 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 삼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새번역』	말씀하셨다.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서, 사흘날에 살아나야 한다.”
『공동개정』	예수께서는 이어서 “사람의 아들은 반드시 많은 고난을 겪고 원로들과 대사제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하고 말씀하셨다.
『새한글』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인자가 반드시 고난을 많이 겪어야 합니다. 원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한테서 쓸모없다고 버림받아야 합니다. 죽임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3일째 날에는 일으킴받아 살아나야 합니다.”

### 3.1. 차이점 관찰

- (1) 『개역개정』은 ‘반드시’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있는 반면에 『새번역』과 『공동개정』 『새한글』은 ‘반드시’라는 부사를 집어 넣었습니다.
- (2) 『개역개정』과 『새번역』은 ‘살아나야 한다’로 번역하고 『새한글』도 존대어로 되어 있는 것만 다르고 동일하게 번역한 반면에, 『공동개정』은 ‘다시 살아날 것이다’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 (3) 『개역개정』과 『새번역』은 단순히 ‘살아나다’로, 『공동개정』은 ‘다시 살아나다’로 번역한 반면에, 『새한글』은 ‘일으킴을 받아’라는 표현을 집어 넣어 번역하였습니다.
- (4) 『새한글』의 경우에는 마지막 부분을 번역하면서 ‘그러나’라고 접속사를 번역한 반면에 다른 세 개의 한글 성경은 순접의 의미를 전달하는 것으로 접속사를 이해하였습니다.

### 3.2. 외국어 역본 참조

- (1) 영어 성경의 경우에는 모든 역본에서 ‘반드시’에 해당하는 ‘must’를 넣어서 번역하여 모든 동작들(고난받다, 버림받다, 죽임당하다, 일으킴을 받다)이 ‘must’와 연결되게 번역하였고 마지막 부분의 접속사의 경우에 대부분 ‘and’로 이해한 반면에, CJB와 GNB 등에서 ‘but’으로 번역하였습니다.

- (2) 독일어 성경의 경우에도 ‘반드시’에 해당하는 ‘muß’를 넣어 번역하였고, 마지막 부분의 접속사의 경우에 EIN만 ‘그러나’에 해당하는 ‘aber’로 번

역하였습니다.

### 3.3. 차이점이 생긴 이유에 대한 예비적 고찰

(1) 『개역개정』의 번역이 원문의 강렬한 의미를 살려내지 못하기에 다른 번역들은 ‘반드시’를 넣은 것으로 여겨지며, 다만 『공동개정』은 뒷부분에서 필연적 사건 발생을 표현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2005년에 가톨릭에서 다시 번역한 『성경』에서 ‘되살아나야 한다’로 번역했다고 여겨집니다.

(2)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하여 『새한글』이 ‘일으킴받아’를 집어넣은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이 하나님에 의해 이루어지기에 그런 추면을 설명하기 위한 장치로 여겨지는데 원문에서도 동사는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3) 마지막 부분의 접속사를 ‘그러나’로 번역한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이 이전의 모든 과정을 뒤집어엎는 것임을 강조하려는 의도 때문으로 보입니다.

### 3.4. 차이점이 생긴 이유에 대한 신학적 고찰

(1) 그리스어 원문에 따르면 구속사적으로 중요성을 가지고 있어서 반드시 일어나야 할 일을 표현하기 위해서 쓰이는 용어( $\delta\epsilon\iota$ )가 사용되었는데 그 것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표현할 것인가에 대한 견해에 따라 번역이 진행되었다고 여겨집니다.<sup>2)</sup>

(2) 그런 중요성을 지니고 있기에 모든 동사와 관련하여 당위성을 표현하는 『새한글』의 번역은 원문의 의도를 전달하기 위해 효과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3) 예수님의 부활은 사도행전에서도 언제나 수동태로 되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부활의 주체로 그려지기에 ‘일으킴받아’를 집어넣은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4) 그리스어의 접속사를 무시하거나  $\kappa\alpha\iota$ 같이 흔히 쓰이는 접속사를 단순히 ‘그리고’라는 의미로만 번역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할 수 있으며, 이것을 ‘그러나’로 번역할 때에 이번 경우와 같이 원문의 의미가 제대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

2) 이 용어의 의미와 관련해서는 J. Nolland, *Luke 1-9:20* (Dallas: Word Books, 1989), 131-132를 참조하라.

#### 4. 누가복음 11:2

GNT<sup>5</sup>

εἶπεν δὲ αὐτοῖς, “Οταν προσεύχησθε λέγετε,

Πάτερ, ἀγιασθήτω τὸ ὄνομά σου· ἐλθέτω ἡ βασιλεία σου·

『개역개정』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새번역』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말하여라.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  
시고,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십시오.

『공동개정』

예수께서는 이렇게 가르쳐주셨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여라. 아버지, 온 세상이 아버지를 하느님으  
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새한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기도할 때 이렇게  
말하세요 아버지, 하나님 이름이 높임받으시기를 빕니  
다. 하나님 나라가 오기를 빕니다.

##### 4.1. 차이점 관찰

(1) 『개역개정』과 『공동개정』에서 처음 부분에 동사의 간접목적어를 생략한 반면에, 『새번역』은 ‘그들에게’를, 『새한글』은 ‘제자들에게’로 번역하였습니다.

(2) 『개역개정』과 『공동개정』은 ‘이렇게 하라/하여라’로 번역한 반면에 『새번역』과 『새한글』은 ‘이렇게 말하여라/말하세요’로 번역하였습니다.

(3) 기도문의 첫 번째 명령문을 『개역개정』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로 번역한 반면에, 『새번역』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로 『공동개정』은 ‘온 세상이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받들게 하시며’로 번역하였습니다.

(4) 두 번째 명령문을 『개역개정』은 ‘나라가 임하시오며’로, 『새번역』은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십시오’로, 『공동개정』은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로 번역하였으며, 『새한글』은 첫 번째, 두 번째 명령문의 명령법을 기원으로 번역하였습니다.

(5) 『개역개정』과 『새번역』은 ‘거룩하게 하다’로 번역한 반면에 『공동개정』은 의역하여 번역하였고 『새한글』은 ‘높이다/존중하다’의 의미로 번역하였습니다.

#### 4.2. 외국어 역본 참조

- (1) 기도문의 명령법과 관련하여 거의 모든 영어 성경은 기원하는 의미로 번역하며, GW의 경우에는 'let'을 넣어서 번역하였습니다.
- (2) 거의 모든 독일어 성경의 경우에 영어의 가정법에 해당하는 접속법을 써서 기원의 의미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 4.3. 차이점이 생긴 이유에 대한 예비적 고찰

- (1) '말하다' 동사의 유무는 특별한 의미는 없으며, 문맥상 '하다'로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한 듯하고, 그럼에도 『새번역』과 『새한글』에서 원문을 반영하여 '말하다'로 번역하여 의미를 분명히 하고자 했다고 여겨집니다.
- (2) 간접목적어의 유무도 (1)과 유사한 이유로 발생했다고 생각됩니다.
- (3) 기도문의 3인칭 명령법의 번역의 경우에 『개역개정』을 제외한 한글 성경들은 3인칭 명령법을 『개역개정』식으로 표현하는 것은 국문법에 맞지 않고 영어식으로 표현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사역동사를 넣어서 번역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 (4) '거룩하게 하다'는 동사의 뜻이 모호하게 들릴 수 있기에 『공동개정』은 의역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구절의 문맥에서 이 동사는 '존경하다'의 의미를 전달한다고 생각하여 『새한글』에서 '높임받다'로 번역했다고 여겨집니다.

#### 4.4. 차이점이 생긴 이유에 대한 신학적 고찰

- (1) 그리스어의 3인칭 명령법의 해석은 여러 가지로 복잡한 문제라 할 수 있으며, 영어에서는 많은 경우에 사역동사인 'let'을 써서 번역하지만 이것은 정확한 번역이라 할 수 없으며, 따라서 무턱대고 따라가서는 절대 안 되는 방향이라 하겠습니다.
- (2) 그리스어의 명령법은 기원과 바람을 나타내기 위해서도 사용되므로 이런 점을 살펴서 주기도문의 경우에 기원하는 방식으로 번역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따라서 『새한글』의 번역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sup>3)</sup>
- (3)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기를 원한다'는 바람과 기원이지 그렇게 하게 해달라는 청원은 아니라 할 수 있기에 『새한글』의 번역은 타당하며 이와 같은 명령법 3인칭의 번역 방식은 신약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필요가 있습니다.

3) 그리스어의 명령법의 의미와 관련해서는, D. Wallace, *Greek Grammar: Beyond the Basics* (Grand Rapids: Zondervan, 1996), 485-493을 참조하라.

## 5. 누가복음 14:27

GNT<sup>5</sup>

**ὅστις οὐ βαστάζει** τὸν σταυρὸν ἐαυτοῦ **καὶ ἔρχεται** ὁπίσω  
μου, οὐ δύναται εἶναι μου μαθητής.

『개역개정』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새번역』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공동개정』

그리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새한글』

**누구라도** 자기 십자가를 **메지 않고** 내 뒤를 **따르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 5.1. 차이점 관찰

(1) 『개역개정』과 『공동개정』은 ‘그리고’에 해당하는 접속사를 각각 ‘…도’와 ‘그리고’로 번역하고 있으며 『새번역』과 『새한글』은 이 접속사를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2) 『개역개정』, 『새번역』, 『공동개정』 모두, 부정하는 표현을 ‘따르지 않는 자’로 번역하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로 이해한 반면에, 『새한글』은 ‘메지 않고’라고 번역하여 부정어를 ‘지다/메다’에 연결하고 ‘내 뒤를 따르는’에는 부정하는 의미를 넣지 않는 방식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 5.2. 외국어 역본 참조

(1) 모든 영어 성경은 『개역개정』 등과 동일하게 부정어가 ‘십자가를 메지 않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라는 의미로 번역하였으며, 다만 오래된 TNT 등은 ‘whosoever beare not his crosse and come after me’로 번역하여 『새한글』의 뉘앙스를 띠게 해 놓았습니다.

(2) 모든 독일어 성경의 번역은 영어 성경처럼 분명하지는 못하여, 첫 번째 동사인 ‘메다’ 앞에만 부정어를 붙여 놓았습니다.

### 5.3. 차이점이 생긴 이유에 대한 예비적 고찰

(1) ‘그리고’에 해당하는 접속사의 경우는 사본학상으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기에 사본학적 결정에 따른 번역의 결과로 여겨집니다.

(2) 그리스어 원문에 부정어가 첫 번째 동사인 ‘메다’ 앞에만 놓여 있기에

그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번역이 달라졌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대다수 한글 성경과 영어 성경은 이 부정어가 두 번째 동사까지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고, 『새한글』은 첫 번째 동사에만 연결된다고 이해한 것으로 보입니다.

(3) 모든 독일어 성경이 모호하게 번역한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영어의 경우와 달리 독일어의 경우에 분명히 표현이 안 되기 때문으로 보이며, 어쩌면 일부러 원문을 그대로 반영하여 모호하게 표현했다고 여겨집니다.

#### 5.4. 차이점이 새긴 이유에 대한 신학적 고찰

(1) 그리스어 문법상으로 부정어는 첫 번째 동사에만 있기에, 반드시 두 번째 동사까지 이 부정어가 영향을 미친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2) 바로 앞 구절인 26절에서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과 자기 가족과 자기 목숨에 대해 집착하는 것을 구별하여 설명하기에 이 구절에서도 십자가를 지는 것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구별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3) ‘십자가를 폐다’라는 말은 십자가에 달려 죽을 죄인이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모습을 형상화해 주는데 그렇게 죽을 각오를 하지 않고 단순히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 의미가 없음을 이 구절이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4) 14장은 예루살렘을 향한 여행 기사의 중간에 위치해 있으며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는 제자들에게 제자도를 가르치고 있는데, 제자들은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설 곳으로 가고 있으나 십자가를 자신들이 지는 것은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도 나중에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 가게 된다면 반드시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5) 9:23에 보면 유사한 내용이 등장하는데 거기서 ‘누구든지 나를 뒤따르려면 자신을 내려놓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폐고 나를 따라오기 바랍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는데, 이때 십자가를 폐는 것과 뒤따르는 것은 구별된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는 하고 예수님께 나아오기는 하지만 십자가는 지려고 하지 않는 것에 대한 경고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제어>(Keywords)

성경번역, 신적 수동태, 현재완료시제, 그리스어 명령법, 접속사.

Bible translation, divine passive, Greek present perfect, Greek imperative, Greek conjunction.

(투고 일자: 2024년 9월 6일, 심사 일자: 2024년 9월 24일, 게재 확정 일자: 2024년 10월 2일)